

9월 2주
방해를 넘어서는 믿음

- 본문 말씀: 느헤미야 6:15~16 (9월 11일 본문)
- 포인트: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3. 말씀

느헤미야 6:15~16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5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우리말성경>

15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16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 본문 이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원수)이 위협하며 방해했기에 유다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일했어요. 그럼에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던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매우 싫어했어요(2:10).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면 그들의 세력 확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정치적인 음모론을 주장하며 위협했어요.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심지어 유다 귀족들과 제사장까지 동원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든든히 붙들린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되어(4:14) 성벽을 재건해 나갔어요. 그렇게 고군분투한 결과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함께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할 때 공사를 반대하던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에 대적은 절망하며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선한 싸움 이후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재앙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 4. 나눔

1)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5~16절)

■ 저학년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는 일이 끝나자 원수들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6절)

■ 유아·유치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나요? 왜 그랬을까요?(16절)

□ 질문 가이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유다 사람들에게 회복의 시작이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과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유다 지역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유다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게셈 사람은 유다 남쪽 에돔 땅에 사는 사람으로, 그 역시 유다 민족이 회복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에 반기지 않았어요(2:19).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유다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의 회복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2) 어떤 경우에 나는 신앙적 결단을 포기하고 싶어지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저학년

내가 믿음으로 한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 유아·유치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위해 내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 질문 가이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024년을 시작하며 다짐한 신앙적 결단 중에 포기한 일이 있다면,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것을 점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곳곳하게 신앙적 결단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지, 사람들이 시선과 평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방해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길 바라요.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응원해 주세요.

≡ 5. 감사하기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반대자가 되지 않고 동역자가 되게 해 주세요.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한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